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연재소설 연구*

-연애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김지영**

〈차례〉

1. 들어가며
2. 1950년대 『여원』의 연애담론과 연재소설의 전반적 특성
3. 세계 체제와 질주하는 욕망
4. 환멸의 세계와 의무화된 사랑
5. 낭만적 사랑의 함정과 욕망의 아이러니
6.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50년대 『여원』이 실었던 연재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대 여성 문화와 교양담론을 선도해 나갔던 『여원』의 연애 담론이 소설로 구현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戰後 연애 담론의 현주소를 밝히고, 1950년대 『여원』 연재소설을 역사적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여원』의 기사와 칼럼들은 해방 후 대중화되기 시작한 연애의 자유에 대한 관념을 결혼과 굳게 결부시키고, 성, 사랑, 결혼이 하나의 관계 안에 행복하게 일치하는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적 존재로 정체화하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재확립하고자 했다. 『여원』의 연재소설들은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했던 연애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담론 창출의 장이었다. 1950년대 『여원』에 실린 연

* 이 논문은 201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131054).

** 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재소설 총 14편 중 13편이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그 중 시대물과 연재 중단물을 제외한 9편이 청춘남녀의 사랑의 갈등을 고난 극복의 드라마로 그리면서 명증한 선악의 구도를 통해 성, 사랑, 결혼이 일치하는 윤리적 관계를 바람직한 사랑의 모델로 견인해 나간다. 그러나 소설은 담론의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또한 담론의 이상 안에 내재한 모순을 들추어내고 담론의 정향성에 균열을 빚어냈다. 『방초탑』이 동양적 윤리의 우월성을 암시하면서도 서구적 ‘자유’를 과잉 이해하는 동경의 심리와 전통 회복의 의지 사이에서 유동하는 당대인들의 동요를 노출하고 있었다면, 『현가』는 한 번 결정된 마음의 정향에 운명적 숭고성을 부여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을 극도의 정신주의적인 금욕의 세계로까지 이끌어간 결과, 정신주의가 추구하는 완전한 평화와 해방의 끝점은 죽음과 같은 것임을 노출하는 역설적 결과를 보였다. 이와 궤도를 달리하여, 『후조의 귀로』는 성적 욕망에 굴복하는 비규범적 사건을 통해 규격화된 낭만적 사랑이 실패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사랑의 새로운 의미가 탐구될 수 있는 진공을 개방했다. 이처럼 연애의 자유가 촉발하는 욕망의 질주, 정신적 사랑과 금욕주의, 섹슈얼리티의 유혹 등을 면밀하게 묘사하는 가운데 『여원』의 연재소설들은 담론이 정향하는 사랑의 규범을 일정하게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같이 정향된 규범에 균열을 가하는 비규범적 욕망과 이해를 노출했다. 그런 점에서 『여원』의 연재소설은 이론적이고 담론적인 형태로 제출된 낭만적 사랑을 실제 생활의 영역과 접속시켜 사고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담론과 배치되는 당대인들의 동요와 불안을 드러내고 낮은 사랑에 대한 상상으로 부터 빚어지는 실존적 욕망과 방어의식을 함께 노출했던 문화적 구성물로서 그 역사적 위상이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여원, 여성문학, 여류작가, 1950년대, 연애, 낭만적 사랑, 여성교양, 주부, 가정, 대중소설, 연재소설, 여성잡지

1. 들어가며

1955년 10월 창간된 『여원』은 전후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여성잡지다. 『여원』은 『신여자』, 『여자계』, 『신여성』 등 식민지 시대 계몽 여성잡지의 계보를 잇는 동시에,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중앙』 등 본격적인 여성 대중잡지 시대의 문을 연 매체로, 1950년대 여성담론의 중심을 이루는 미디어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교양의 함양과 여성의식의 증진을 목표로 했던 대중잡지로서 『여원』이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관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성, 사랑, 결혼의 문제였다. 연애와 결혼, 성과 교육, 부부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매호마다 기획되었던 특집의 중심이었으며,¹⁾ 여대생, 미망인, 직업여성, 가족계획, 의식주 등 제반 문제들이 이로부터 파생되어 각종 칼럼과 좌담, 정보와 기획면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상담실과 각종 수기들을 통해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성, 사랑, 결혼의 고민을 털어 놓고 공유하며 공감과 조언을 구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여원』은 명실공히 당대 여성 문화를 대표하는 여성 담론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 있는 젊은 여성들의 정신의 양식”,²⁾ “전체 여성이 갈망하는 충실한 교양지”,³⁾ “여성 교양의 원천”이자 “신생활의 지침서”⁴⁾로 『여원』을 칭송했던 독자들의 반응과 “발간 3년만에 4만부라는 경이로운 발행부수”⁵⁾는 『여원』이 성, 사랑, 결혼의 문제에 대한 당대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중심 미디어의 하나였음을 확인해 준다.

1) 1956년의 예만 보더라도, ‘미혼 여성에게 보내는 결혼 특집’(2월), ‘연애’(4월), ‘행복에의 설계’(6월), ‘성의 발견’(6월), ‘성과 교육’(11월), ‘결혼 시즌에 보내는 특집’(11월) 등으로 대부분의 특집 기사가 사랑과 결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지속된다.

2) 『독자의 편지』, 『여원』, 1957.3, 294쪽.

3) 『독자의 편지』, 『여원』, 1957.1, 186쪽.

4) 『독자의 편지』, 『여원』, 1957.2, 280쪽.

5)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와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58쪽.

이 글은 1950년대 『여원』이 실향의 연재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처럼 당대 여성 문화와 교양을 주도해 나갔던 『여원』의 연애 담론이 소설로 구현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戰後 연애 담론의 현주소를 밝히고, 1950년대 『여원』 연재소설을 역사적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소설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담론들을 생활의 현장 속으로 이전시켜 재현하는 매체이다. 소설이 구현하는 구체적이고 현장적인 재현의 세계는 이론적으로 추상화된 담론을 초월하여 생활적이고 현실적인 감각 속에 당대인들의 사고와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의미 있는 장치이다. 논설, 칼럼, 기사 등을 통해 이론화된 담론 너머에서 소설이 구현해낸 생활적 감각의 세계는 담론을 재현하고 현실화하는 재생산의 장소인 동시에 담론의 맹점을 드러내고 현실과 담론의 갈등, 경합, 협상의 과정을 노출하는 재의미화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여원』의 연재소설에 대한 이 같은 탐구는 추상적 이론과 현실적 감각의 경합 속에서 당대 성, 사랑, 결혼에 대한 의식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동안 문학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1950년대 『여원』 연재소설에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⁶⁾

6) 1950년대 『여원』의 연재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드물다. 김양선의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한국근대문학연구』 22, 2010, 205~230쪽)에서 김말봉의 「방초탑」이 중심에 대한 양가적 감정 속에 있는 로컬 지식인 주체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김정숙의 「일상성과 한국전쟁을 형상화하는 여성작가의 시선-강신재의 『청춘(靑春)의 불문율(不文律)』론」(『비교한국학』 17권 1호, 2009, 277~300쪽)에서 「청춘의 불문율」이 전쟁 기억을 함축하고 당대의 풍물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서사적 측면에서 1950년대 『여원』에 접근한 논문으로는 만화를 소재로 한 장미영의 「『여원』 소재 서사만화 연구」(『국어문학』 44, 국어문학회, 2008, 239~263쪽)와 이선미의 「1950년대 젠더 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월순아지매”」(『여성문학연구』 2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61~201쪽)가 있고, 현상문에 및 단편소설을 분석한 이덕화의 「『여원』에 발표된 [여류현상문에] 당선작품과 기성 여성작가 작품의 비교연구」(『현대소설연구』 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59~276쪽) 외에 『여원』이 여성문학 장의 형성에 기여한 역할을 밝힌 김양선의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61~91쪽)이 있다.

2. 1950년대 『여원』의 연애담론과 연재소설의 전반적 특성

『여원』의 여성담론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여원』의 여성담론은 현모양처의 이념으로 압축된다.⁷⁾ 1950년대 『여원』은 당시 자립적 근대화의 기로에서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급속한 변동을 겪고 있던 사회 전반을 ‘위기’로 규정하고, 여성담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의 표준을 생산하고자 했다. 즉 새롭게 부각되는 부박한 소비문화와 퇴폐문화에 젖은 불건전한 의식의 주범으로 여성을 지목하고 여성의식의 각성과 계몽을 자립적 근대화의 초석으로 역설함으로써 여성성의 규준과 여성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혼탁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식적 각성의 중심으로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이념이 다시금 호명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여원』은 현모양처의 이념을 통해 여성을 가정의 중심으로 명명하고,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가족들을 보살피며 근대적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운영해야 할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아프레걸, 자유부인, 마담족과 같이 기존의 성 역할 테두리를 넘어서는 여성들을 반사회적 인물로 분류하고 소망스런 여성상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 제한함으로써 『여원』은 여성성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가부장적 이념 아래

7) 2000년대 후반부터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여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주로 아프레걸 담론과 모성 담론, 독신여성 담론, 간통 담론, 여성 교양 담론 등 여성문화를 형성하는 담론의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담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여원』의 여성담론이 여성을 가부장적 이념 아래 여성을 규율하는 현모양처의 담론이라는 점이다. 『여원』에 대한 담론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의 “아프레 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16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쪽; 김현주, 앞의 글;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1950(55~58)년대 『여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4, 2008, 51~81쪽; 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여원』에 나타난 간통의 담론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31~160쪽.

복속시킴으로써 전통적 젠더 위계를 복원했다.⁸⁾

『여원』에서 ‘연애’는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될 가족 구성의 주춧돌로서 『여원』의 성, 사랑, 결혼담론의 시발점이 된 관념이었다.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근대적 사랑의 방식으로 식민지 시대 지식인 사회에서 주창되었던 ‘연애’는, 1950년대 이르러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자 바람직한 혼인의 방식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연애’의 대중화는 1950년대 『여원』의 칼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였다. 연애와 결혼의 자유가 확대된 것이 해방 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⁹⁾ “여대생의 거개가 자유결혼을 희망하고 있고, 남녀교제는 현사조의 당연한 생리처럼 인식”¹⁰⁾된다는 진단들이 등장했고,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소는 그 첫째가 연애요, 둘째도 연애요, 셋째도 연애이다.”¹¹⁾라는 식의 연애론이 한 해에도 수차례씩 지면을 장식했다. 연애는 스스로를 책임지고 규율하며 바람직한 자아상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의 발현이자¹²⁾ “가족과 민족 전체의 생활력을 강화”¹³⁾하는 국가적 생활력의 기초였으며, 사랑과 결혼이라는 사적 생활을 중요한 삶의 중심으로 담론화하고 그 공적 의의를 명명함으로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결합하는 중요한 담론의 매개체였다.

그러는 한편 『여원』은 연애의 자유를 결혼과 가족의 울타리 내부에 묶어 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복원함으로써 내면성의 성찰과 자아의

8) 『여원』 담론의 사회적 성격과 여성규율에 대해서는 김은하, 김현주, 김복순의 앞의 글 참조.

9) 조연현, 『해방후: 윤리적 기초의 변모』, 『여원』, 1957.6, 176~179쪽.

10) 『여대생의 연애와 결혼』, 『여원』, 1959.11, 89쪽.

11) 주요섭, 『결혼, 연애의 행복』, 『여원』, 1956.6, 53쪽.

12) 전통적 가족 규율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함으로써 연애는 근대 시민 사회가 표방했던 자유와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례로 한 칼럼은 “사랑은 자유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 자발적 규율과 책임을 역설했다. 안인희, 『연애와 결혼』, 『여원』, 1956.2, 107쪽.

13) “결혼의 본질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과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가족과 민족 전체의 생활력을 강화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김용배, 『결혼철학대화』, 『여원』, 1958.4.

확충이라는 사적 의미보다는 연애의 공적인 성격을 오히려 강조했다. 연애는 어디까지나 결혼을 위한 수단이어야 했으며,¹⁴⁾ 여성에게 사랑과 헌신을 강요하는 가족의 구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통과례여야 했다. 때문에 여성의 순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강조되었다. 연애결혼을 주창하는 가운데 『여원』이 무엇보다도 경계한 것은 연애를 결혼의 조건으로 사고하지 않는 태도였다. 남성을 향락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둘씩 셋씩 애인을 가지는 새로운 여성풍속”¹⁵⁾의 주인공으로서 아프레걸, 자유부인을 명명하고 이들을 준열하게 비판함으로써 『여원』은 사랑의 목적을 결혼과 가정의 구성으로 명료화했다.

“정조는 생명”이며 “처녀는 처녀라야 한다”¹⁶⁾는 전통적 정조론이 부활하고, 육체는 이성으로 돌아가라는 정신주의가 힘을 얻은 것은¹⁷⁾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정신적 사랑과 순결성에 대한 강조는 사랑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결혼과 가족 내부에 묶어 두는 강고한 매개고리였다. 사랑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불온한 충동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을 가족의 테두리 안에 제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며, 가족 경계 내에서 여성의 성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위대한 모성의 정신적 기쁨으로 현현되는 자질이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원』의 연애 담론은 성과 사랑과 결혼을 하나의 관계 속에 행복하게 결합하는 낭만적 사랑의¹⁸⁾ 이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14)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연애는 『여원』이 가장 경계한 악덕이었다. 앞에서 제시한 연애와 결혼 관련 칼럼의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일치한다. 대표적인 예로 안인희, 주요섭의 위의 글, 1957년 6월에 실린 <한국여성의 연애사>에 실린 조연현, 이어령, 김동리의 글을 들 수 있다.

15) 조연현, 앞의 글, 177쪽.

16) 나절로, 「처녀관념과 정조론」, 『여원』, 1956.11, 162~165쪽.

17) 이와 같은 논조를 지닌 대표적 예로 다음의 칼럼들을 들 수 있다. 노천명, 「연애는 반드시 결혼의 전제여야 하나」, 『여원』, 1956.4, 41~45쪽; 오화섭, 「연애와 욕망」, 『여원』, 1956.4, 50~53쪽; 양명문, 「현대연애론」, 『여원』, 1958.6, 80~84쪽.

18) 낭만적 사랑은 성과 사랑과 결혼의 대상이 불일치했던 중세의 기사도적 사랑이나 근세의 열정적 사랑과 구분되는 근대적 사랑으로 성, 사랑, 결혼이 하나의 대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랑이다.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그러나 1950년대 『여원』에서 이와 같은 주도적 담론이 지배적 형식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아직 농촌인구가 더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도시의 아프레걸, 자유부인 만큼이나 봉건적 인식이 근대적 삶을 가로막는 일차적 장애였으며, 남성 중심의 봉건적 압박은 무엇보다 개혁해야 할 구태의 핵심이었다.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의 성기계로만 여기는 상 싫은 태도”에 대한 공격,¹⁹⁾ 부모의 완고성이야말로 새 시대의 연애와 결혼의 일차적 장애라는 지적,²⁰⁾ “가족제도에 억눌리고 남자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으로 일생을 허비”하게 되는 아내의 위치에 대한 비판²¹⁾ 속에서 『여원』은 남녀의 대등한 인격에 대한 의지나 혼인생활의 민주화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 또한 강렬하게 노출하고 있었다.

남성의 우월성 안에 숨어 있는 봉건성과 기만적 성격을 꼬집는 비판적인 태도 역시 만만치는 않았다.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주류 담론의 다른 한 편에는 “정조를 과대평가하고 처녀 순결론을 고창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는 과감한 반론이²²⁾ 등장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위해서라면 이 혼 또한 긍정될 수 있었으며, 혼전 전 성적 교제를 개방하는 한편 “여자편에 피해가 생기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남녀 간 교제의 비밀을 절대 비밀로” 부처주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²³⁾ 당대의 결혼 난을 논의한 한 좌담회에서는 혼전 이성관계와 관련하여 ‘과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²⁴⁾ 1956.5월에 기획된 <남성

참조.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 변동』,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1; 볼프강 라트비,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이끼리오, 1999; 재클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19) 현병진, 「성교육의 실정과 개선의 길」, 『여원』, 1956.11, 55쪽.

20) 곽종원, 「연애와 우정의 한계」, 『여원』, 1956.4, 46~49쪽.

21) 장경학, 「혼인에 있어서 봉건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여원』, 1956.2, 135쪽.

22) 안인희, 앞의 글, 107쪽.

23) 장경학, 「한국여성의 성관심과 성행동의 변천」, 『여원』, 1957.12, 232쪽.

24) 「좌담회: 결혼이 쉽고도 어려운 시대」, 『여원』, 1958.1, 108~118쪽.

연구> 특집에서는 남성의 우월성을 회의하고 남성의 행복은 여성에 대한 배려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에게도 정조를 요구하는 공격적 태도가 등장하기도 했다.²⁵⁾ 봉건성 타파를 개혁의 우선 과제로 주창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성역할 분리에서 빚어지는 경험적 모순에 대한 비판 역시 신랄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성, 사랑, 결혼을 하나의 관계 안에 행복하게 결합시키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점차 공고화 된 것은 이처럼 비균질적이고 비판적인 담론들이 자유롭게 지면에 오를 수 있었던 여건과 무관하지 않았다. 창간호 이후 1956년대까지 비교적 자주 눈에 띄던 봉건성에 대한 비판과 대등한 인격에 대한 요구는 1957년을 지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여원』은 아프레 담론과 같은 여성비판의 논조를 더욱 강화시킨다. 1950년대 후반, 『여원』은 <여성비판>(1958.1), <해방 14년 여성생활의 변천>(1959.8), <여대생을 비판한다>(1959.11), <한국여성에 대한 불평불만>(1960.3) 등 당시 한국여성의 세태를 신랄하게 꼬집는 특집들을 게재하면서 서구 문화를 추종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더욱 강화한다. 아프레걸을 사회의 공적(公敵)으로 매도하면서 연애와 결혼을 직결시키고 순결성과 희생, 모성을 강조하는 연애론의 논조 또한 고조된다. 사랑은 “일체의 저속을 떠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결성과 승화작용을 내포”해야 한다는 순결주의²⁶⁾나, 물질성을 극복하고 “사랑의 끝없는 영원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신주의²⁷⁾가 강화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관습을 전복하는 변화의 감각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동요에 대한 반작용이 정신적 사랑을 강조하며, 전통적 부덕과 모성을 찬양하고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정당성을 주창하는 담론의 정향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하여 1950년대 『여원』이 주창했던 연애의 자유는 “결혼에 있어서는

25) 이 특집에 실린 글은 다음과 같다. 안인희, 「남자의 정조」; 박은혜, 「과연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가」; 방순경, 「남성이 추구하는 행복」; 조기홍, 「뿌리 깊은 한국남성의 봉건성」.

26) 양명문, 앞의 글, 81쪽.

27) 김은우, 「사랑과 실존」, 『여원』, 1959.3, 77쪽.

단 한번 상대편-반려자-를 선택하는 자유만이 허여된 것이다.”²⁸⁾라는 제한된 자유로 한정되며, 연애의 이념은 성, 사랑, 결혼을 하나의 관계 속에 행복하게 결합시키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수렴된다.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공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랑의 자유가 배태한 불온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에 대한 집단적 방어 의식의 결과였던 셈이다.

『여원』의 연재소설들은 기사와 칼럼에서 주창되었던 이 같은 담론을 실생활의 현장과 접목시켜 구현하는 담론의 구성물이자 생산처였다. 창간 이래 1950년대 전 기간을 통해 매호 3~5편 정도 꾸준히 게재되었던 연재소설은 간헐적으로 한두 편씩 게재되곤 했던 단편소설과 달리 『여원』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중점 장르의 하나였다. 최정희, 박화성, 김말봉, 강신재 등 문단에서 지명도가 높았던 여성작가와 정비석, 장덕조, 박용구, 조풍연과 같은 대중작가들이 집필을 담당했던 데서 알 수 있듯, 연재소설은 여성적 시각에서 대중의 감각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실어날랐다. 1950년대 『여원』에 실린 연재소설들을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여원』 연재소설 목록>

	작가명	작품명	수록 년도	장르	중심 소재	비고
1	최정희	흑의의 여인	1955.10~1956.10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2	박용구	태평성세	1955.10~1956.10	역사소설	청년남녀의 사랑	
3	정비석	산유화	1955.10~1957.01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4	조훈파	성춘향	1956.03~1957.03	고전개작	청년남녀의 사랑	
5	김영수	외로운 사람들	1956.04~1956.06	연애소설	청년남녀의 사랑	연재중단
6	박계주	연연무한	1956.11~1957.02	연애소설	청년남녀의 사랑	연재중단
7	이종환	청춘광야	1956.11~1957.10	연애/역사	청년남녀의 사랑	
8	정비석	아래향	1957.02~1958.01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9	김말봉	방초탑	1957.02~1958.02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28) 이헌구, 『새 세대의 결혼윤리』, 『여원』, 1956.11, 161쪽.

10	장덕조	현가	1957.11~1958.11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11	강신재	청춘의 불문율	1958.02~1958.12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12	박화성	바람뉘	1958.04~1959.04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13	조풍연	심연의 안테나	1958.12~1959.09	추리소설	살인, 치정, 간첩	
14	홍성유	후조의 귀로	1959.02~1960.03	연애가정	청년남녀의 사랑	

도표를 통해 뚜렷이 명시되듯, 연재소설은 가정과 연애문제를 다룬 연애소설이 대부분을 이룬다.²⁹⁾ 역사 및 고전개작의 형식을 띤 「성춘향」과 「태평성세」 또한 고전의 사랑 이야기와 조선조 여인의 결혼 풍속에 대한 성찰(「태평성세」)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리소설 장르에 해당하는 조풍연의 「심연의 안테나」 한 편을 제외한 모든 소설이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조선 시대를 다룬 것이 두 편, 식민지 시대 만주를 무대로 한 것이 한 편(「청춘광야」)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대(당대)물이다. 중간에 연재가 중단된 「외로운 사람들」과 「연연무한」을 제외하면,³⁰⁾ 연재소설은 대체로 13~16회 정도에 걸치는 분량으로 연재되었으며 연재 후 얇은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되어 읽혔는데, 단행본의 재판(再版)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듯하다.

고전과 추리 장르를 제외하고 완결까지 연재된 9편의 소설들은³¹⁾ 기사와 칼럼에서 주창되던 연애의 자유가 당대 청년남녀들의 삶과 접합한 다양한 실천적 양식들을 보여주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부분 결혼 전후의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들이 겪는 사랑의 갈등과 모험을 다룬다. 「산유화」, 「아래향」, 「방초탑」, 「청춘광

29) 박화성의 「바람뉘」가 예외적으로 유부녀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그 또한 여성주인공의 이성문제와 그로 인한 오해가 갈등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연애소설 계열로 보아 무리가 없다.

30) 김영수의 「외로운 사람들」은 1956.4월에 시작하여 1956.6월 3회까지 연재되었고, 박계주의 「연연무한」은 1956.11부터 1957.2월 4회까지 연재되었으나, 두 작품 모두 작가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 갑자기 중단되었다.

31) 연재가 중단된 「연연무한」과 「외로운 사람들」 역시 청춘남녀의 사랑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연재 분량이 짧고 이야기의 중심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야, 『현가』, 『청춘의 불문율』, 『후조의 귀로』가 미혼 남녀의 사랑과 갈등을 다룬 멜로드라마의 형태라면, 『흑의의 여인』은 식민지 말 일본 유학중 일어난 청춘남녀들의 엇갈린 사랑과 결혼에서 시작하여 해방 후까지의 사연을 다루었고, 『바람뉘』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세 아이를 기르면서 첫사랑과 재회한 여인의 이야기이다.³²⁾ 여대생(『산유화』, 『청춘의 불문율』), 여교사(『아래향』, 『현가』, 『흑의의 여인』, 『후조의 귀로』), 여교수(『방초탑』), 예술가(『현가』, 『후조의 귀로』), 학식 있는 주부(『바람뉘』) 등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여주인공들은 당시 대중 속으로 투입하기 시작한 연애의 풍속을 구체적인 경험의 형식으로 재현해 주는 선구적 모델이 된다.

둘째, 청춘남녀의 사랑의 갈등을 그리되 내적인 성찰보다는 외적인 고난과 극복의 드라마가 중심을 이룬다. 연재소설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생활의 우연한 계기를 통해 만나게 된 청춘 남녀의 자율적 의지에 의한 사랑이라는 소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소설에서 빚어지는 사랑의 갈등은 거대한 사회적 억압이나 세계관의 충돌보다는 악인의 모략과 같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 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삼각관계에 있는 연적의 질투와 모략에 의한 연인들의 고난사를 그린 『산유화』, 『아래향』이나 신문기자의 중상 혹은 시댁 식구의 오해가 고난의 매개고리로 작용하는 『현가』, 『바람뉘』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결말 부분에서 사랑했던 남자와의 거대한 간격을 발견하는 『흑의의 여인』 또한 학창시절 악인에 의한 연애 엇갈림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계열에 속하며,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자매의 연애 갈등을 독립 운동과 접합시킨 『청춘광야』나 역시 한 남자를 매개고리로 개방적인 미국유학과들과 전통형 여주인공이 갈등을 벌이는 『방초탑』, 성찰적 성격을 지니지만 가정교사로 있는 부잣집 딸과의 연적관계로 고통 받는 여주인공을 다룬 『청춘의 불

32) 그 밖에 고전 작품인 『춘향전』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소설 『태평성세』 역시 규방에 갇힌 조선조 여인이 오라비를 비롯한 남정네들의 방탕한 세태와 여성들의 제한된 생활을 바라보며 비판적 성찰을 해나가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동일한 계열에 속한다.

문을』 역시 중심 소재인 사랑의 갈등이 외적인 데서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내적 성찰보다 외적 고난과 극복의 드라마에 치중하는 서사 방식은 복잡한 사회 현실이나 세계에 대한 대응보다는 사건적 재미를 일차적으로 제공하고, 선악의 구도를 통해 명증한 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와 불안을 잠재우고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중서사의 전략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셋째, 사랑의 갈등들이 명증한 선악의 구도를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사랑의 모델을 견인해 나간다. 사랑에 대한 믿음, 방종하지 않는 단정함과 순결성, 확고한 자기의지(절개)를 지키는 단호함 등은 『여원』 연재소설의 대부분 여주인공들이 공유하는 성격적 특징이다. 「산유화」, 「아래향」, 「현가」, 「바람뉘」, 「방초탑」, 「청춘의 불문을」 등 다수의 여주인공들은 오해와 중상을 견뎌내고 자신의 순정을 정직하게 지켜내는 한편, 육체적 유혹을 물리치고 상대와 정신적 교감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일구어 간다.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외적 압력을 꺾듯하게 견뎌내는 여성들의 모습은 사랑을 지켜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습적 수동성을 뛰어넘어 남성 이상의 주도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벼운 키스까지는 경우에 따라 허용하되 결혼에 이르기까지 순결성을 지켜내며, 타인의 오해와 질시를 조용히 인내하는 전통적 미덕 또한 겸비한다. 극단적으로 몰아치는 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순정을 지켜내는 여주인공들의 모습은 기사와 칼럼에서 주창되어 온 순결한 연애의 극단적 표본들을 이룬다. 이들의 확고한 사랑과 순결한 의지, 그리고 도덕성을 통해 연재소설들은 성, 사랑, 결혼을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하게 실현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을 생활의 현실 속에 재현해 낸다.

이상의 특징들은 『여원』의 연재소설이 지배적 연애담론을 복사하고 재구성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덕목들을 제시하는 담론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소설이 단순히 지배적인 연애 담론을 반영하고 투영해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여원』의 연재소설들은

이론적인 담론의 기준을 일정하게 복사하면서도, 또한 이론 너머에서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재현하는 가운데 낯선 사랑의 양태에 대한 당대인들의 불안의식과 두려움을 노출하였으며 그로부터 빚어지는 실존적 욕망과 방어의식들을 다채롭게 노출했다. 다음 장에서는 1950년대 『여원』 연재 소설에서 나타나는 연애의 양상을 세계화, 정신주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당대의 인식적 특성과 관련시켜 보고, 각각의 특성들을 극단적 사랑의 양태로 형상화해낸 세 편의 작품, 『방초탑』(김말봉), 『현가』(장덕조), 『후조의 귀로』(홍성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 작품에 대한 분석은 지배 담론을 복사하면서도 그에 균열을 가했던 1950년대 『여원』 연재소설의 양면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 체제와 질주하는 욕망

1950년대는 해방과 전쟁, 분단이라는 국가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 UN 등의 외세와 직접적으로 조우하고 초국가적인 세계체제를 경험했던 시기였다. 냉전체제와 긴박한 국제정세에 의해 전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초국가적 관심이 증가했던 탓에, 신문과 잡지들은 미·소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정세에 관해서도 긴밀한 관심을 기울였고, 유학생의 증가와 미국식 서구 문화의 유입을 통해 급속한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만주, 일본, 남양, 미국을 무대로 한 소설들이 1950년대 『여원』의 연재소설로 등장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일본군에 징집되어 남양에 파견된 한국인 군의관 청년과 인도 아가씨의 사랑을 다룬 박계주의 『연연무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 동경의 댄스홀에서 댄서로 전락한 한국인 처녀의 사연을 다룬 김영수의 『외로운 사람들』, 만주에서 旅舍를 운영하는 자매와 투숙 한국인들 사이에 싹튼 사랑과 독립운동에 연루된 모험을 다룬 이종환의 『청춘광야』, 미국 시찰 여행에서 만난 처녀 교수와 바람둥이 시나리오 작가의 이국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다른 김말봉의 『방초탑』 등, 전체 14편 중 4편의 소설이 초국가적 배경을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의 초국가적 감각을 뚜렷이 드러내 주는 이 소설들 가운데 특히 김말봉의 『방초탑』은 당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재외 한인 및 서구화된 문화적 태도를 지닌 한국인의 사랑 세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³³⁾

『방초탑』의 남주인공 남학은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시찰할 만큼 사회적 명성을 얻은 시나리오 작가로 당대 유입된 서구 문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감각하고 체현한 인물이다. “일시적, 비등하는 감정으로, 키스도 하고 때로는 여인의 정조도 소유해 버리는”³⁴⁾ 남학은 당시 아프리카와 같은 여성들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방탕하고 분방한 연애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시찰 여행의 일원인 여주인공 장정실은 물론, 하와이의 헬렌 주, 샌프란시스코의 설정려, 워싱턴 D.C의 손미림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여성마다 유혹하여 키스와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아끼지 않는데, 윤리적 제어 없이 여성에 대한 끌림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남학의 행동은 자유로운 사랑의 정당성이 처음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된 당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낭만”³⁵⁾의 한 극단을 이룬다. 따라서 『방초탑』은 구습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실험하게 된 당대적 자유의 감각을 가장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상상해 본 실험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남학의 제한 없는 욕망의 방출은 미국이라는 이국적 공간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시작하는 이 소설은 동경,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에 이르는 이국의 공간을 따라 진행되며, 이동의 중간 정착지마다 남학의 방탕한 연애 행각이 이어진다. 동경의 호텔에서

33) 박계주, 김영수의 작품은 초반에 연재가 중단되었고, 이중환의 『청춘광야』는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험소설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여원』 연재소설의 일반적 경향과는 계열을 달리한다.

34) 김말봉, 『방초탑』, 『여원』, 1957.2, 163쪽.

35) 실제로 작가는 이 방탕한 인물을 “겉으로 보기에는 낭만의 주인공인 남학”으로 명명한다. 김말봉, 위의 글, 『여원』, 1959.11, 177쪽.

처음 장정실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강제적으로 키스를 나누는 이래, 남학은 비행기가 머무는 각각의 도시에서마다 하나씩 새로운 애인을 만들어내는 데, 이 같은 연애 행각의 배경에는 풍요롭고 부유하며 이색적인 이국의 공간 문화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꽃과 녹음에 파묻혀 신화에 있는 「에덴」을 상기케”(1957.5, 112쪽) 하는 주택들과 “영업적인 호텔이 아니고 살림하는 여염집인데도, 세수통이며, 샤워며, 그리고 씻어가는 변소까지” 검비한 주거 환경(1957.3, 169쪽), “모두 절반 몸을 벗은 가나까 남녀들의 노래하고 춤추는” 나이트 클럽과 “정욕을 조발하는” 여인들의 홀라댄스(1957.3, 172쪽), “늙고 젊은 남녀들이 쌍쌍이 색채찬란한 해수욕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덩구는” 해변(1957.5, 111쪽) 등은 저개발국가 한국이라는 제한된 지역성의 범주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풍경들이다. 화려하고 이채로운 풍경 속에서 남학과 장정실은 골든 게이트와 베이 브릿지를 넘나드는 드라이브(1957.7, 199쪽)를 즐기고 각종 파티에 초대되어 이색적인 요리들을 맛보며, 댄스와 공원산책, 한인 교회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한다.

남학의 극단적으로 분방한 태도는 소설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이국적 풍물에 중첩되어 있는 서구적 삶에 대한 동경과 맞물려 있다. “서울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신만만하던 자기의 용모가 미대륙으로 들어서면 서부터 어딘지 모르게 지긋이 눌러주는 압박감을 어찌할 수 없다”³⁶⁾는 내밀한 고백에서 드러나듯, 이질적인 문물 앞에서 본국에서 스스로 앞서가는 근대인임을 자처했던 제 3세계 주변인 청년을 압도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열등감이다. 이 같은 식민지적 열등감이 제국 현장에서 경험하는 경이감과 접촉하면서 인물로 하여금 중심에 대한 주변인의 무의식적 모방을 극단적으로 가속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남학과 대조되는 위치에서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예절다운”(1957.5, 109쪽) 동양 여인의 미덕을 갖춘 장정실은 “지리적, 성적으로 주변부에

36) 김말봉, 위의 글, 『여원』, 1957.9, 128쪽.

위치한 여성 독자 및 작가의 열등감을 상쇄³⁷⁾하는 표상이다. 동경에서의 키스 사건 이래 남학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장정실은 남학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조용히 참아내고 포용하는 한편, 남학을 차지하기 위한 헬렌 주의 무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일침을 가하는 엄격함 또한 보임으로써 외유 내강한 한국 여성의 인내와 결기를 겸비한다. “동양여인이란 것은 노예³⁸⁾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간주하는 헬렌 주의 무분별한 태도와 대조되는 장정실의 품성은 헬렌 주의 약혼자 쯔지 최로부터 추앙과 존경에 가까운 사랑을 얻으며, 끝내는 남학의 참된 사랑을 획득하는 근거가 된다. “남자를 쉬게 해 주는 여자³⁹⁾”라는 장정실에 대한 쯔지 최의 찬탄과 그러한 장정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남학을 통해, 작가는 헬렌 주의 그것과 같이 화려하고 적극적인 서구적 사랑을 초월하는 전통의 우수성을 확인하려 한다. 서구 근대를 동경하면서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열등감을 전통의 우월성을 확인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는 이 같은 결말구조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동경을 전통적 젠더 위계와 접속시켜 가부장적 가족구조 안으로 수렴시켰던 담론의 움직임과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주목되는 것은 로컬적 열등감을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정실의 전통적 미덕 이면에는 서구적 삶과 사랑에 대한 동경이 또한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장정실은 전통적 혼인방식에 회의하는 인물이다. 전쟁으로 부모가 주선했던 약혼자와 이별한 장정실은 증매로 결혼을 결정하는 한국적 풍속에 대한 회의 때문에 25세가 넘도록 결혼을 생각지 않고 있는 처지였다. 동경에서 남학의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 “말로만 듣던 키스⁴⁰⁾”를

37)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한국근대문학연구』 22, 2010, 223쪽. 모운숙, 전해린의 에세이와 김말봉, 박순녀의 소설을 함께 고찰한 이 논문은,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여행 서사가 세계체제를 향한 지향과 전후 국가주의의 재건 사이에서 유통하는 지식인 주체들의 분열된 내면을 모종의 젠더 프리즘을 거쳐 나타낸다고 보았다.

38) 김말봉, 앞의 글, 『여원』, 1957.8, 170쪽.

39) 김말봉, 위의 글, 『여원』, 1957.5, 115쪽.

40) 김말봉, 위의 글, 『여원』, 1957.3, 164쪽.

경험한 장정실은 그것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위의 탈바가지를 쓴 위선자들이 수두룩한 세상이라면 『탕아』의 낙인을 찍힌 남학이가 오히려 진실하지 않은가?”⁴¹⁾라는 의식의 전도를 겪는다. “사랑하는 감정이 솟구친 대로 나는 용감했을 뿐입니다. 남학은 위선 같은 것은 도무지 싫어하니깐요”⁴²⁾라는 남학의 말에서 감정에 솔직한 태도의 진실을 읽어내는 장정실의 적극적인 이해는 ‘사랑의 자유’라는 새로운 문화의 움직임이 촉발한 가치관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실 이 적극적 오해 안에는 어느 쪽에도 의도적 잘못이 없다. 솔직함을 표방하여 강제적으로 정실의 입술을 범하고도 떴떿해 마지 않는 남학이나 남학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키스를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정실이나 모두 새로운 문화의 지표로 떠오른 ‘연애의 자유’가 생성한 이해의 ‘과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낯선 문화 앞에 이질성을 느끼면서도 그 문화가 상징하는 선진성 앞에서 식민지적 주변인들이 쉽게 드러내는 과잉된 이해와 수용의 자세가 태도의 희극을 생성하는 것이다. 사랑의 자유에 대한 이 과잉된 이해는 남학으로 하여금 방탕한 연애 행각을 지속하고, 장정실로 하여금 스스로를 남학의 약혼녀로 생각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내와 포용을 지속하게 만든다.

따라서 바람둥이 남학과 동양적 미덕의 여인 장정실의 기묘한 연애는 서구적 삶에 대한 동경과 동양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뒤섞여 있는 기이한 형태로 진행된다. 장정실이 지닌 편안함을 결핍한 헬렌 주의 적극적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고, 남학의 방탕이 결국은 공허함만을 남기는 데서 알 수 있듯, 정열이 아니라 권리가 되어버린 저돌적 에로티시즘의 방출은 오히려 사랑의 부재를 증명할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에 솔직하게 귀 기울이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 또한 비극을 낳는다. 남학에 대한 연심을 소극적으로만 간직하다가 쪼지 최의 진심 어린 사랑을 거절해 버린 장정실은 교통사고로 쪼지 최와 건강한 다리를 동시에 잃게 되고, 연이어 한

41) 위의 글, 167쪽.

42) 위의 글, 163쪽.

인 의사 박성호의 호감을 오해하고 가슴 속에만 연정을 품었다가 박성호와 이옥진의 약혼의 충격으로 팔목을 다치는 해프닝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⁴³⁾ 장정실의 불편해진 다리와 팔목은 자신의 욕망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했던 장정실의 소극적 태도가 인물의 육체에 새겨 놓은 자욱이자 각인에 다름 아니다. 소극성의 결과로 얻은 육체의 상처는 장정실의 내면에 존재하는 서구적 ‘자유’에 대한 과잉 이해 및 동경의 심리와 결합하면서 동양적 사랑의 전통만을 긍정할 수 없는 균열의 지점을 만들어낸다.

남학과 장정실의 행복은 서구에 대한 과잉된 모방과 전통의 압박을 넘어서는 어느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설은 그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고 일관된 구조로 구현하지는 못한다. 남학에 대한 장정실의 태도에서도 장정실에 대한 남학의 태도에서도 깊이 있는 성찰이나 합리적인 변화의 계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헬렌을 사랑하니까, 나 『질라스』(질투) 했나 보, 엑스큐스 해요”⁴⁴⁾와 같이 영어와 한국어를 무질서하게 섞어 쓰는 특유의 문체에서와 같이 소설의 중심에는 뚜렷한 구조적 계기보다는 남학의 질주하는 욕망과 장정실의 혼란스런 인내가 아노미적으로 혼용되어 있을 뿐이다. 자유연애의 가능성이 열어 놓은 기대와 혼란을 여실히 반영하는 이 같은 소설의 구도는, 표면적으로 동양적 윤리의 우월성을 암시하고자 하면서도, 세계체제와 더불어 개방된 사랑의 무한한 가능성과 전통의 호명을 통한 균형 회복의 의지 사이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인들의 의식의 균열을 뚜렷이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43) 아이러니하게도 소극성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번 실연을 경험했던 박성호는 장정실을 만난 이후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알게 되고 이옥진과 행복한 약혼에 이른다. 그런 점에서 박성호 역시 소극적인 사랑의 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인물형이라 할 수 있다.

44) 김말봉, 앞의 글, 『여원』, 1957.5, 107쪽.

4. 환멸의 세계와 의무화된 사랑

2장에서 살폈듯, 1950년대 『여원』의 연애론은 성, 사랑, 결혼을 하나의 관계 속에 일치시키는 낭만적 사랑을 지향했으며, 성과 혼인의 합일에 대한 이상은 연애 안에서 육체를 부정하고 정신적 교감을 강조하는 정신주의적 경향을 짙게 내포한다. “진정한 연애는 ‘플라토닉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⁴⁵⁾이라는 생각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결혼이라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극기하면서 육을 억제하고 영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⁴⁶⁾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진정한 사랑은 그 강렬함과 절실함으로 인해 “종교나 예술 둘 중의 하나”⁴⁷⁾와 같은 존귀한 가치를 부여 받았으며, 그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저속을 떠나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순결성과 승화작용을 내포”⁴⁸⁾해야 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며 (중략)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받으라고 안하는 희생적인 것”⁴⁹⁾이라는 정신주의는 세속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초월하는 데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논리를 통해 “고도의 인간성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연애와 결혼은 독립시켜 생각”⁵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로 진전되기도 했다.

실제로 성, 사랑, 결혼을 하나의 관계 속에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의 강렬한 감정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키는 영원성의 약속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낭만적 사랑의 관념 속에서는 영원성과 결합한 우주적 운명의 감각이 성적인 요소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⁵¹⁾ 결혼과 결부된 오직 하나의 섹슈얼리티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모든 섹

45) 주요섭, 앞의 글, 54쪽.

46) 이는 『여원』에 실린 칼럼의 지배적 논조로, 오화섭, 노천명, 주요섭, 양명문의 앞의 글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47) 조지훈, 『연애미학서설』, 『여원』, 1956.4, 83쪽.

48) 양명문, 앞의 글, 81쪽.

49) 노천명, 앞의 글, 41쪽.

50) 위의 글, 44쪽.

51) 낭만적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는 앤소니 기든스, 볼프강 라트비의 앞의 책 참조.

슈얼리티와 단절해야 하는 불편을 영원성과 결합하는 운명의 숭고한 이미지를 통해 보상하고 상쇄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관계 안에 사랑의 모든 것을 수렴시키는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특정한 타자만을 특별한 사람으로 가려내기 위해 우주적 운명의 이미지를 동원한다. 영원성과 결합한 숭고한 운명의 이미지가 사랑의 불안정하고 무수한 가능성 앞에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잠재적 통로를 마련하고 심리적 안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애와 결혼을 결합시킨 낭만적 사랑과 숭고의 이미지는 그 태생부터 근본적으로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여원』의 연애론을 주도했던 낭만적 연애의 숭고화 경향은 연재소설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주인공 남녀의 첫 만남을 “시선이 마주 닿이는 순간 (중략) 무슨 전류 같은 충격이 몸속을 꿰뚫고 지난 것”⁵²⁾처럼 운명적으로 묘사하는 「청춘의 불문율」(강신재), 악인들의 거짓과 모략 앞에서도 타인의 부도덕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윤리적 태도를 고수하며 내면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연인들의 승리를 그린 「산유화」(정비석)와 「아래향」(정비석),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일본군 장교에게 육체를 희생하는 여인에게 행복한 결말을 준비하는 「청춘광야」(이종환) 등 다수의 소설들이 사랑하는 남녀의 운명적 만남, 숭고한 희생, 정신적 결합의 강고함 등을 모티프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1957년 11월부터 1958년 11월까지 연재된 장덕조의 「현가」는 극도의 정신주의를 지향한 작품으로 주목에 값한다.

「현가」에는 음악가 현학과 그의 제자 채란희, 독고준, 그리고 무용가 옥수연이라는 네 사람의 예술가가 등장한다. 이 소설이 다른 멜로드라마와 구분되는 점은 네 사람의 주인공 그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소설은 현학에 대한 책임감 어린 사랑 때문에 독고준의 사랑을 외면한 채 독고준과 옥수연을 맺어주려 했던 채란희가, 자신을 잊지 못하는 독고준의 열정어린 고백을 듣게 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장면을 목격한

52) 강신재, 「청춘의 불문율」, 『여원』, 1958.3, 320쪽.

신문기자의 악의에 찬 스캔들 기사로 현학에게 내침을 당한 채란희는 홀로 낙향하지만 독고준과 옥수연을 도우면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예술을 통해 재기를 노린 독고준이 현학의 음악을 표절하여 상을 받게 되자, 표절 혐의를 뒤집어 쓴 현학은 나라를 떠나 채란희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기록한 일기를 남기고 죽는다.

사랑의 갈등 관계에 있는 네 사람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내부의 감정과 싸운다. 노스승의 입장에 있는 현학은 젊은이들의 열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축출된 채란희를 남몰래 돕고, 채란희는 독고준에 대한 감정을 누른 채 독고준과 옥수연의 사랑만을 축복하며, 독고준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옥수연을 떠나지 못하여 예술에 전념하려 하고, 옥수연 또한 독고준의 감정을 알면서도 조용히 그를 뒷받침한다. 타인에 대한 선의와 자기희생으로만 구성된 이들의 순결한 사랑이 위기를 맞는 것은 순전히 외부적 요인 탓이다. 언론은 일말의 증거도 없이 이들의 관계를 반인륜적 치정 관계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기사를 번번이 실어 보내고, 독고준의 표절 또한 현학의 잘못으로 전도되어 노음악가로 하여금 가차 없는 사회적 매장을 경험하게 한다. “노작곡가 H씨의 정부 채란희는 (중략) 늙은 H씨에게 육체적인 불만을 품고 그의 제자인 독고준과 치정의 쾌락을 탐하여 왔다”⁵³⁾거나 “한 남자를 두 여성이 함께 관계한다”⁵⁴⁾는 기사로 이들의 선의의 관계를 매도하는 언론은 아프레걸 담론을 생산하던 당대 연애담론의 일면과 아이러니하게 맞물린다. 언론이 매개하는 소문을 통해 부상한 아프레걸 담론이 언론으로 하여금 이를 경계하는 정신주의적 연애론을 매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가』에서는 파렴치한 치정 기사를 신는 언론이 역으로 악의적 기사의 희생이 된 인물들로 하여금 고도의 정신주의적 삶을 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남의 약점을 잡아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해치고 잡아다리고 하기만”⁵⁵⁾ 일삼는 사회와 잘못을 알면서도 “명리에 매이고 환경에 좌우되

53) 장덕조, 『현가』, 『여원』, 1957.12, 248쪽.

54) 장덕조, 위의 글, 『여원』, 1958.5, 115쪽.

어”⁵⁶⁾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인간의 양태는 인물들로 하여금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 안, 단 한 사람의 인간에게도 물건에도 미련은 남지 않았다”⁵⁷⁾고 느끼게 만드는 혐오감을 유발하고, 세계에 대한 환멸은 인물들이 예술과 정신의 세계에만 칩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는 사랑의 순수함을 훼손하고 사랑의 감정을 쉽게 육체와 연결지어 난류의 관계를 상상하는 세속에 대한 환멸의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에 대한 환멸과 정신주의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는 “남녀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단 하나 단 한 번 뿐”⁵⁸⁾이라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다. 네 명의 예술가를 괴롭히는 고통은 각자의 내밀한 사랑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의 어긋남에서 비롯된다. 옥수연은 독고준을, 독고준은 채란희를, 채란희는 현학을 사랑하는 이 잘못된 화살의 방향은 한 번 결정되고 나면 결코 수정되는 법이 없다. “사랑은 단 한 사람에게만 바치는 것이기에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어요.”⁵⁹⁾라는 독고준의 유서가 역설하듯, 『현가』의 네 인물을 지배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일단 발견되기만 하면 영원하다”⁶⁰⁾는 낭만적 사랑의 믿음인 것이다.

한 번 결정된 마음의 정향이 수정되지 않는 영원성을 지니고 그 정향이 행복한 일치에 이를 수 없도록 조건지음으로써, 작가는 네 명의 선한 예술가들을 모두 희생과 헌신이라는 고귀한 정신의 세계로 몰아간다. 옥수연은 일신의 영예를 잇은 채 오로지 독고준을 위해 헌신하고, 음악을 통한 예술적 승화를 꿈꾸다 실패한 독고준은 오직 자신의 죄의식만 대면하는 도덕적 번민의 세계로 침잠하며, 현학은 채란희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고, 한 때 독고준에게 동요되었던 채란희 역시 현학의 숭고한 사랑을 깨달으며 그에 대한 기억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

55) 장덕조, 위의 글, 『여원』, 1958.1, 330쪽.

56) 위의 글, 304쪽.

57) 장덕조, 위의 글, 『여원』, 1958.6, 159쪽.

58) 장덕조, 위의 글, 『여원』, 1958.7, 216쪽.

59) 장덕조, 위의 글, 『여원』, 1958.11, 182쪽.

60)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88쪽.

먹는 것이다. 특히 주인공 채란희의 정신주의는 파리에서 현학의 일기를 들고 왔던 명기환에 대한 끌림 또한 현학에 대한 추억의 공유 때문이라는 알리바이로 가장하고, 명기환의 청혼 앞에 “결혼이란 말을 듣게 된 것 만으로도 모독을 당한 듯한 마음”⁶¹⁾이 드는 극도의 순결주의로 치닫는다. “연애는 반드시 결혼의 전제여야 하나?”라는 역설을 통해 결혼을 초월한 정신적 경지야말로 최고의 사랑임을 주장했던 한 여류 시인의 칼럼에서와 같이,⁶²⁾ 이성애적 출발 그 자체까지도 부인해 버리는 이 고도의 정신주의는 『여원』이 주창했던 숭고화된 낭만적 사랑의 한 극점을 이룬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숭고화된 낭만적 사랑의 끝점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이다. 소설은 옥수연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채란희를 떨쳐버리지도 못한 채 표절로 스승을 사지에 몰아간 독고준이 자신의 죄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종교적 참회의 시간을 보내던 끝에, “마른 몸에 무겁게 실리는 세속이 더욱 귀찮아”지고, “영혼을, 정신을, 양상한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양상한 정신”⁶³⁾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죽음 속에서 해방을 맞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동경이었다. / 죽음은 이제 그에게 공포보담 고향을 생각하듯 훈훈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말이었다. / 죽음이란 진실로 자연 속에 용해하여 버리는 것으로 그보담 더한 평화는 없을 것 같았다. (중략) 『죽음』. / 독고운의 영혼은 지금 그 가슴 속 깊숙한 곳까지 비치어오는 밝은 빛을 받아 비로소 어떤 구제의 길이 발견되는 듯했다. 승리의 감정 같은 것이 솟아올랐다. 이제는 포학도 반역도 느낄 수 없었다.⁶⁴⁾

욕망의 억압 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정신주의의 끝자리에서 독

61) 장덕조, 앞의 글, 『여원』, 1958.9, 205쪽.

62) 노천명, 앞의 글.

63) 장덕조, 앞의 글, 『여원』, 1958.11, 179쪽.

64) 위의 글, 181~182쪽.

고준은 ‘죽음’에서 진정한 “구제의 길”을 찾는다. 죽음이야말로 정신주의가 갈망하는 영혼의 세계이며 완전한 평화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기실 정신주의가 추구하는 절정의 평안과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일 수밖에 없다. 숭고한 영혼의 해방만을 추구하는 삶의 끝자리에 놓인 것은 고민하고 동요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 아니라 생동하는 삶이 제거된 순수 추상인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그 안에 어떠한 의지나 실천을 가지지 않는 완전한 無의 세계일 뿐이다. 때문에 ‘죽음’을 희구함으로써 독고준이 마침내 획득하는 “승리의 감정”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강제되었던 정신주의적 삶에 대한 원한의 표현으로 읽힌다. 독고준의 ‘해방’은 세속적 욕망을 거부하고 영혼이라는 순수 추상만을 희구하는 정신주의의 끝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임을 증거하는 역설적 항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숭고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가』의 정신주의는 육체의 억압과 정신적 사랑을 강조했던 『여원』의 정신주의적 연애담론을 직접적으로 복사하면서도, 그와 같은 담론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함정을 들추어냄으로써 그에 균열을 가하는 양면적 성격을 함께 지녔던 셈이다.

5. 낭만적 사랑의 함정과 욕망의 아이러니

1959년 2월부터 1960년 3월까지 연재된 홍성유 작 『후조의 귀로』는 1950년대 『여원』 연재소설의 일반적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여성적 관점에서 사랑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원』 연재소설의 일반적 경향과 달리 남성 주인공을 앞세워 남성 욕망과 판타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도유망한 집안의 여대생 약혼녀를 둔 젊고 유능한 변호사 주인공이 어느날 우연히 만난 여류화가와 일탈적 관계에 빠져들고 여류화가의 약혼자가 자살을 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낯선 남녀가 호감을 느끼고 섹슈얼리티의 유혹에 빠져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밀도 있게 묘사한다. 그때까지 『여원』 소설에서 미온적으로만 다루어지던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소설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후조의 귀로』는 다른 연재물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이성을 지닌다.

1950년대 『여원』에서 섹슈얼리티는 긴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킨제이 보고서의 영향과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에 대한 『여원』의 관심이 ‘성’을 공적 담론의 대상으로 공공화시킨 것이다. 1950년대 『여원』은 <성의 발견>(1956.6), <성과 교육>(1956.11), <특집, 피임에 대한 우리의 실정과 선후책>(1958.5), <현대부부론>(1959.10), <종합, 섹스 노이로제>(1960.2), <종합연구, 변민하는 사춘후반기>(1960.3) 등 성 문제 특집을 기획했고, 『성에 대한 혐오는 현대 문명의 폐단이다.』(1957.1), 『킨제이 연구소 방문기』(1957.11), 『한국여성의 성관심과 성행동의 변천』(장경학, 1957.12),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 키스』(정한모, 1959.2), 『육욕과 애욕 사이』(하이재, 1959.3) 등등 다수의 성 문제 관련 칼럼들을 실어날랐으며, 성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상 성행동의 종류, 행복한 성생활의 비결 등을 자세히 소개한 서구 의학자 유스 테이스 체셔 박사의 『두려움 없는 사랑』 시리즈를 1957년 12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장기간 연재했다. ‘성을 정당한 지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 교육을 실시하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하여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여원』의 성 칼럼들은 성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공론화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여원』이 말하는 성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출산과 교육, 가족계획, 부부생활 등 가정의 범주에 제한된 것이었다. 연애 관계에 있는 혼전 남녀에게 성은 어디까지나 금기의 영역이었으며, 결혼에 포함되지 않는 육체의 만남은 방종, 퇴폐, 망국의 현상으로 극심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여원』의 연재소설들은 이 같은 담론의 흐름과 기본적 호흡을 같이 했다. 『아래향』, 『산유화』, 『청춘의 불문율』 등 혼전의 청춘 남녀를 주인공

으로 삼은 소설들은 때때로 아찔한 키스의 장면들로 황홀한 연애의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으나, 정결한 영혼의 화합을 우선으로 하는 낭만적 사랑을 지향하는 주인공들에게 그 이상의 육체적 접촉은 허락하지 않았다. 육체의 만남이라는 모티프는 악인, 악녀에 의한 장난과 유혹,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계의 서사로서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랑의 대척점에 놓이는 일화적 모티프로만 기능할 뿐이었다.⁶⁵⁾

제각기 약혼자를 둔 남녀의 일탈적 사랑의 과정을 면밀하게 따라가고 있는 「후조의 귀로」는 이 같은 『여원』의 기본적인 담론 구도와 뚜렷이 배치되는 사랑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소설은 약혼 1년차 연인인 미영과 지수가 약혼 기념 1주년 사진을 찍고 약속했던 등산에 미영이 불참하면서 시작된다. 미영의 불참으로 우울했던 지수가 등산에서 만난 혜옥의 발랄한 모습에 마음이 끌리고 다음날 다시 혜옥과 미술관람을 하게 되면서 사건은 신속하게 전개된다. 미술관, 요리집, 사무실, 기차역, 여관으로 이동하는 지수와 혜옥의 만남은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걸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 약혼자 이외의 인물에게서 “자주적인 낭만의 보따리”⁶⁶⁾를 발견하고, “아슬아슬하고도 굴곡이 많은 그와의 대화에서 조그만 자극과 흥미의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는 듯한 즐거움”⁶⁷⁾ 느끼는 이들의 만남은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감상적이면서도 열정적이고 또한 자기모순적인 사랑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외적 강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취향에 대한 자발적인 끌림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만남은 낭만적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이미 진행되어 있는 각자의 약혼 또한 일체의 강제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이고 낭만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이다. 미영과 지수의 약혼은 “누가 시켜서 한 연애두 아니구 자기네끼리 좋아지내며”⁶⁸⁾ 이루어진

65) 최정희의 「흑의의 여인」, 정비석의 「산유화」, 이종환의 「청춘광야」에서 악인, 악녀에 의한 육체적 만남의 모티프가 부정적 연애의 사례로 등장한다.

66) 홍성유, 「후조의 귀로」, 『여원』, 1959.2, 223쪽.

67) 위의 글, 230쪽.

68)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6, 295쪽.

관계이며, 혜옥 또한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승낙해 논 약혼”⁶⁹⁾에 매여 있는 상태이다. 작가는 이 같은 사실을 양자의 부모를 통해 여러 번 언급함으로써 명확히 확인해 두는데, 이러한 확인은 비자발적 결혼과 자발적 연애 사이의 문제가 갈등의 중심을 이룸으로써 ‘부모 강제에서 벗어난 연애의 자유’가 긴밀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식민지 시기 연애 소설들과 이 작품이 지닌 문제의식의 차이를 뚜렷이 드러낸다.

지수와 혜옥의 만남은 지수와 미영의 사랑이 균열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서로의 성격과 환경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약혼한 지수와 미영의 관계는 ‘성=사랑=결혼’이라는 낭만적 사랑의 시나리오를 준수하는 모범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미영과의 시간을 “판에 박은 듯한 나날”⁷⁰⁾로 느끼고 그녀와의 만남이 “단순히 젊음의 기분(중략)에 이끌린 습성”⁷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는다. 따라서 혜옥에 대한 지수의 끌림과 육체적 관계는 낭만적 사랑의 안티테제라기보다는 낭만적 사랑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데 더 가깝다.

이 점은 적극적인 혜옥과 대조되는 미영의 성격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안정된 관계를 소망하는 미영은 사회적 규범의 보호막 아래 암전히 자신을 가둠으로써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열중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미영은 지수에게 다정한 보살핌과 관심을 기대하지만 스스로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이 보조하는 남녀관계의 구도와 낭만적 사랑의 시나리오 안에 미영의 의사는 온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⁷²⁾ 따라서 지수의 일탈은 이처럼 규

69)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11, 245쪽.

70)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3, 306쪽.

71)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6, 291쪽.

72) 이 점은 미영이 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기 위해 떠났던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심규진과의 에피소드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미영은 제주도에서 갓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심규진의 호의에 감정의 동요를 느끼면서도 이를 순수한 감정의 추억으로 간직하려 한다. 심규진의 적극적인 구애에 호응하지도 않고 “연이 없어 온기가 흐르지 않는 한 장의 삽화”로(『여원』, 1959.12, 247쪽) 미영과의 만남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 감정의 동요를 느끼면서도 끝끝내 자기감정을 드러내

격화된 사랑의 형식이 빚어내는 불모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혜옥은 규범보다는 욕망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이다. 약혼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혜옥은 자신을 매료시키는 감정의 끌림을 쉽게 단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매혹을 탐색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능동성을 지닌다. 미영과 지수의 관계가 소통불능의 관계로만 치닫는 것과 반대로, 비록 엄청난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불발의 사건으로 끝맺기는 하지만 혜옥이 지수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미영과의 규범적 관계에서 불모성을 느끼고 혜옥의 이색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지수가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소설은 규격화된 낭만적 사랑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섹슈얼리티의 낮은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다. 지수는 자신의 불성실을 원망하는 미영을 육체적으로 정복하고, 이어서 혜옥에 대한 매혹 또한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는 것으로 표출해 버린다. “내게는 보다 많은 수성이 있어! (중략) 내가 암전했던 것은 나의 성품이지 내 욕심은 아니었거든”⁷³⁾이라는 욕망의 고백, “내가 원하고 내가 원했던 끝장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 두어야겠어.”⁷⁴⁾라는 위험한 선택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규격화된 규범이 금지하고 배제해 온 사랑의 이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같은 지수의 욕망은 금기에 의해 불타오른다. 혜옥과 만나느라 약속시간에 늦은 지수는 약혼을 철회하고 미영을 단념하려는 순간 오히려 미영에게서 파르스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미영을 정복하게 되며, 미영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혜옥과 이별하려 했던 순간 도리어 혜옥에게 이끌려 춘천행 기차에 올라 버리는 것이다. 제약과 금기를 통해서 더욱 강렬해지는 욕망의 아이러니는 섹슈얼리티의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같은 지수의 욕망을 통해 『후조의 귀

지 않는다.

73)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6, 293쪽.

74)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9, 278쪽.

로」는 그동안 소설적 탐색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했던 사랑의 비이성적 영역을 자각적인 문화 현상의 일부로 등장시킨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혜옥과의 만남으로 인해 점차 자극되고 고무되는 지수의 욕망을 통해 소설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미 알려진 위험을 전경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무리 합리적 논리를 통해 이상적으로 규범화된다고 해도 쾌락이 결코 단념되지 않는다는 사실과의 솔직한 맞대면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인물과 세계의 정직한 대면을 통해 이 위험한 욕망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기보다는 혜옥 약혼자의 자살과 이로 인한 파탄을 통해 일탈의 결과를 파멸로 귀결지음으로써 소설이 마련하고 있는 사랑의 어두운 이면의 문제를 재빨리 봉합해 버린다. 혜옥에 대한 매혹을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실로 무쾌도한 (중략) 애욕의 시간”⁷⁵⁾으로 지수 스스로 규정짓게 함으로써 선악의 논리로 문제를 귀결지어 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일탈의 주인공 지수는 자신의 욕망을 명명하거나 혜옥과의 만남을 의미화하는 자기서사를 마련하지 못한다. 지수는 미영, 혜옥과 관계를 가진 후, “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⁷⁶⁾라고 더듬거리거나 “누구나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⁷⁷⁾이라는 모호한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뚜렷한 이유를 달지 못하는 이 설명불가능성의 토로는 자기 욕망을 봉합하는 감정의 기만인 동시에 섹슈얼리티의 존재에 대한 정직한 반응의 양식이기도 하다. “이유를 따져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⁷⁸⁾ “거기에는 어떤 사상과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⁷⁹⁾라는 비논리성, 혹은 해석불가능성이야말로 실제로 섹슈얼리티가 지닌 모호하고 불합리한

75)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60.1, 190쪽.

76)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6, 294쪽.

77)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9, 276쪽.

78)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3, 312쪽.

79)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59.4, 224쪽.

성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한 당대적 언술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후조의 귀로』가 표면화한 섹슈얼리티와 혼외 끌림의 문제는 규격화된 사랑을 비규격적 사건으로 교체함으로써 사랑의 의미가 새롭게 탐구될 수 있는 성찰의 가능성을 개방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포용적이고 온건한 태도는 이와 같은 성찰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혜옥의 배신을 비판한 약혼자 석두영이 자살하고 이들의 관계가 신문에 대서특필되며 지수가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수와 혜옥의 관계는 파경을 맞는다. 그러나 소설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결말로 귀결되지 않고, 혜옥과 지수의 일탈적 관계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전환점을 맞는다. 그 역시 미국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꾸려왔던 미영의 아버지는 지수의 사건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지수를 이해하려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박군(박지수)의 약점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약점이기도 한 것”⁸⁰⁾이라는 그의 태도는 고정된 선악의 잣대를 넘어 지수의 일탈을 사고하는 개방적 자세를 보여준다. 치명적인 상처와 패륜녀의 낙인을 안고 떠나는 혜옥의 태도 또한 통속적 권선징악의 귀결과 차이를 빛낸다.

사람은 신의 산물인지도 모르지만 신의 소유는 아닙니다. 영원한 내 것이란 없는 것이니까요……. 물은 흐르게 마련이고 우리는 흐르는 물이었을 뿐입니다.⁸¹⁾

지수를 찾아온 미영과 맞닥뜨린 혜옥의 이와 같은 “결산의 선언”은 한 사람과의 운명적이고 신화적인 만남을 이상화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형태를 고정화시키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숨기고 있었던 모순을 정면

80)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60.2, 179쪽.

81)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60.3, 244쪽.

으로 노출한다. 이 같은 모순의 자각은 떠나는 혜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약혼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대상을 앞에 놓고, 그 대상에 쏠리는 감정에조차 우선권이 있는 것일까?”⁸²⁾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미영에게서도 반복된다. 때문에 지수와 혜옥의 사건은 일탈적 욕망에 대한 권선징악적 단죄보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으로 진전된다. “당신의 이유와 우리의 이유는 같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유만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⁸³⁾라는 (혜옥에 말에 대한) 미영 오빠의 대답,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에 이해를 해 주려는 것 뿐이지”⁸⁴⁾라는 아버지의 충고를 수용하면서, 미영은 혜옥을 용서하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지수와는 다른 이와의 사랑에 더 많은 이해와 소통이 필요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었다. 그저 그들의 멀어져 가는 거리처럼 다른 모양의 인생의 모습이 있었을 뿐이었다.”⁸⁵⁾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미영과 혜옥에게 필요한 것은 고정된 윤리의 확인 아니라, 유동하는 욕망들의 충돌과 교차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규범과 윤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찾아나가는 소통과 협상의 자세인 것이다.

그러나 『후조의 귀로』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이 인물과 환경의 내적 긴장관계를 통한 진지한 성찰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논리 없이 ‘이해’를 강조하는 미영 아버지의 태도와 지나치게 포용적인 미영 가족의 모습은 이 소설을 혼외 섹슈얼리티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남성 욕망에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남성 판타지의 하나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비규범적 사건을 통해 규범화된 낭만적 사랑의 안정성에 균열을 가하고 사랑의 새로운 의미가 탐구되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했다

82)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60.3, 246쪽.

83) 위의 글, 245쪽.

84) 홍성유, 위의 글, 『여원』, 1960.2, 179쪽.

85) 같은 곳.

는 점에서 이 소설이 재현한 낭만적 사랑의 실패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실패의 증언 속에서 『여원』의 연재소설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란 단지 특정하게 규범화된 형식을 지키거나 추구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상대의 그것에 대한 솔직하고 평등하며 상호적인 이해와 소통을 통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규범과 윤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찾아나가는 데서 존재함을 성찰할 수 있는 진공을 개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후조의 귀로』가 재현하는 낭만적 사랑의 실패는 평등하고 개방된 소통을 통해 그 의미와 형태가 끊임없이 새롭게 추구되어야 할 대상으로 사랑의 본질을 재의미화한⁸⁶⁾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6. 나오며

이상에서 1950년대 『여원』 연재소설이 담론이 주창했던 성, 사랑, 결혼에 관한 지배적 의식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급격하게 밀려드는 서구 문화와 가치관의 전변에 직면하여, 『여원』의 기사와 칼럼들은 연애의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이 자유를 결혼과 굳게 결부시키고, 여성을 모성적이며 가정적인 존재로 정체화함으로써 가부장적 위계 구도 아래 철저히 종속시키고자 했다. 연애의 문제를 가정과 결혼의 담론 아래 통합하고 분방한 서구문화에 대항하여 남녀의 정신적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여원』의 연애 담론은 혼인과 무관한 열정의 자유로운 방출을 경계하고 운명적이고 이상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으로 수렴되어 갔다.

86) 이는 앤소니 기든스가 주창한 ‘합류적 사랑’의 형태에 가깝다. 기든스는 모성성의 신화와 진정한 사랑은 발견되기만 하면 영원하다는 신화에 의해 그 혁신성을 잃어버린 낭만적 사랑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평등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개방적인 소통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찾고 바람직한 관계의 윤리를 정립해 가는 미래적 사랑의 형태를 ‘합류적 사랑’으로 이름 짓는다.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참조.

『여원』의 연재소설들은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했던 연애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담론 창출의 장이었다. 그러나 소설은 담론의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또한 성, 사랑, 결혼이 일치하는 고정된 관계의 형태만을 이상화하는 담론 안에 내재한 모순을 들추어내고 담론의 정향성에 균열을 빚어냈다. 『방초탑』이 부분별하게 욕망을 표출하는 인물과 전통적 여인의 굴곡 많은 결합 과정을 통해 동양적 윤리의 우월성을 암시하면서도 서구적 ‘자유’를 과잉 이해하는 동경의 심리와 전통 회복의 의지 사이에서 유동하는 지식인 주체들의 동요를 노출하고 있었다면, 『현가』는 한 번 결정된 마음의 정향에 운명적 송고성을 부여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을 극도의 정신주의적인 금욕의 세계로까지 이끌어간 결과, 정신주의가 추구하는 완전한 평화와 해방의 끝점은 죽음과 같은 것임을 노출하는 역설적 결과를 보였다. 이와 궤도를 달리하여, 『후조의 귀로』는 성적 욕망에 굴복하는 비규범적 사건을 통해 규격화된 낭만적 사랑이 실패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사랑의 새로운 의미가 탐구될 수 있는 진공을 개방했다. 연애의 자유가 촉발하는 욕망의 질주, 정신적 사랑과 금욕주의, 섹슈얼리티의 유혹 등을 면밀하게 묘사하는 가운데 세 소설은 담론이 정향하는 사랑의 규범을 일정하게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같이 정향된 규범에 균열을 가하는 비규범적 욕망과 이해를 노출했던 것이다.

기억해야 것은 1950년대 『여원』은 소설이 노출하는 이 같은 낭만적 사랑의 모순과 함정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해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격동하는 장이었다는 사실이다. 대중의 생활 속에 유입되기 시작한 연애의 풍속, 서구적인 근대 문물과 전통의 격돌, 전후의 혼란과 시민사회 건설의 욕망 사이에서, 1950년대 연애와 결혼에 대한 논의는 가부장적 위계화와 낭만적 사랑의 이상 안으로만 온전하게 귀속되지 않는 이채로운 생각들이 격동하는 장이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활발한 담론의 가능성들이 억제되고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강화된 것은 자유분방한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역반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1950년대 『여원』의 연재소설들은 이와 같은 담론의 정향성에 기본적으로

로 부응하면서도 담론의 이상을 생활의 현장 속에 구현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질적 가능성들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여원』 연재소설들이 담아낸 사랑의 형식들은 지배 담론을 흡수하고 이상화하면서도 현실감각을 통해 담론의 이면을 노출하고 문제화하기도 했던 지식인 주체들의 정직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재소설들이 탐색했던 질주하는 욕망, 정신주의의 극한, 낭만적 사랑의 실패 등은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당대인들의 상상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실험한 결과들이다. 그런 점에서 『여원』의 연재소설은 이론적이고 담론적인 형태로 제출된 낭만적 사랑을 실제 생활의 영역과 접촉시켜 사고하고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사랑의 방식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념과 상상, 호기심과 두려움을 실질적인 삶의 형태로 구현해 낸 문화적 구성물로서 그 역사적 위상이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여원』, 1955.10~1960.3.

2차 자료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전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회, 2010, 205~230쪽.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의 ‘아프레 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16집, 한국여성문학회, 2006, 177~209쪽.

김정숙, 「일상성과 한국전쟁을 형상화하는 여성작가의 시선 -강신재의 『청

- 춘(青春)의 불문율(不文律)론』, 『비교한국학』 1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277~300쪽.
-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 2007.
- ,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 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소통』 10, 한림과학원, 2012.12, 173~206쪽.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모성담론: <여원>을 중심으로』, 『국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어문학회, 2007, 11~30쪽.
- 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 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93~336쪽.
- 이덕화, 『『여원』에 발표된 <여류현상문예> 당선작품과 기성 여성작가 작품의 비교연구』, 『현대소설연구』 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59~276쪽.
-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1950(55~58)년대 『여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4, 2008, 51~81쪽.
- , 『1950년대 젠더 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왈순아지매”』, 『여성문학연구』 2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61~201쪽.
- 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여원』에 나타난 간통의 담론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31~160쪽.
- 장미영, 『『여원』 소개 서사만화 연구』, 『국어문학』 44, 국어문학회, 2008, 239~263쪽.
-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 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 변동』. 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2001.
- 볼프강 라트비,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이끌리오, 1999.
- 제클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Abstract

A Research on the Serial Novels in the Women's Magazine *Yeowon* in the 1950s

-with focus on the embodiment of the love discourse after the Korean war-

Chiyoung Kim

In this paper, I searched how the discourse of love reflected in the serial novels in the women's pop magazine *Yeowon* in the 1950s. After the Korean war, th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was significantly criticized and the free love discourse of the colonial times became to be regularized for the mass beyond the restriction of the intellectuals. Along the trend of free love discourse, columns and articles in *Yeowon* combined love into marriage tightly in that they tried to idealize romantic love which combines love, marriage and sexuality together in one relationship, and this combination made it certain that a woman was a being of a domestic area and supported the re-establishment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ystem. The serial novels in the women's pop magazine *Yeowon* in the 1950s reflected and reproduced the love discourse of the magazine. However, serial novels also made a fissure of the discourse in diverse ways. *The Washington Monument*(*Bangchotap*) exposed the disturbance of intellectuals of the days who were floated between the will to reconcile with the tradition and the will to be westernized while over-understanding the western love philosophy. *A Song of a String*(*Hyunga*) revealed a paradoxical result that the end of platonic love was nothing but a status of death when it lead

romantic love into asceticism. *The Return Trip of a Migratory Bird(whojo-ui guiro)* opened a vacuous hollow to investigate new meaning of love when it revealed the fail of romantic love by disclosing one's sexual desire with an unexpected incident.

Key words: Women's novel, The 1950s, Love discourse, Romantic Love, Serial novel, Popular novel, Free love(Yeonae)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